

# 李朝前期에 있어서의 對日南海物産貿易 (下)

金 柄 夏

(慶熙大學校·經商大學·助敎授·經博)

## 차 례

### 第1章 蘇木貿易(上)

1. 概 說
2. 貴族階級の 奢侈와 蘇木의 需要
3. 蘇木의 貿易路와 琉球
4. 15世紀에 있어서의 蘇木 貿易
5. 16世紀에 있어서의 蘇木 貿易

### 第2章 香藥貿易(胡椒貿易을 中心으로)(中)

1. 概 說
2. 胡椒의 需要와 胡椒種旁求問題
3. 15世紀에 있어서의 胡椒

### 貿易

4. 16世紀에 있어서의 胡椒 貿易

### 第3章 鐵貿易(下)

1. 概 說
2. 鐵의 用途와 需要
3. 鐵貿易의 展開

### 第4章 그 밖의 南海物産

- |            |        |
|------------|--------|
| 1. 水牛角     | 7. 丁香  |
| 2. 朱紅      | 8. 沈香  |
| 3. 黑檀(烏梅木) | 9. 龍腦  |
| 4. 象牙      | 10. 藿香 |
| 5. 犀角      | 11. 甘草 |
| 6. 白檀      |        |

### 第5章 結 言

## 第3章 鐵 貿 易

### 1. 概 說

지금까지 第1章(經濟學研究 13輯收載)과 第2章(同書, 14輯收載)에서 李朝前期의 對日蘇木貿易과 胡椒貿易에 대하여 檢討하였다.

蘇木(丹木)은 當時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重要的 絳色(深紅色)染料였었고 胡椒는 貴重한 藥餌이며 香辛料였다. 蘇木과 胡椒는 南海物産中에서도 가장 重要的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朝貢의 性格을 가진 國際貿易에 있어서는 多樣한 進上品이 要求되므로 그밖의 南海物産에 대한 考察은 朝·日貿易의 性格究明에 있어서 意義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本章에서는 鐵(錫)貿易에 대하여 論하고 次章인 第4章에서는 蘇木·胡椒·鐵以外的 南海物産 즉 水牛角·朱紅·黑檀·象牙·犀角·白檀·丁香·沈香·龍腦·藿香·甘草등에 대하여 檢討하려 한다. 이밖에도 肉桂·檳榔·麒麟香麒麟血·肉豆蔻·蘇合油·砂糖등이 輸入되었으나 輸入量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割愛하였다. 이와 같은 南海物産의 具體的인 產地에 대하여서는 勿論 不明한 點이 많고 그 輸入에 대하여서도 아직까지 未開拓狀態로 남아 있는 것이 事實이다.

現在 日本에서는 鐵(錫)이 이 若干 產出되고 있으나 그 埋藏量은 貧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當時의 日本에 있어서도 鐵(錫)이 產出되었는지는 明白하지 않다.

우리나라에 輸入된 鐵의 大部分은 琉球人의 中繼에의 하여 齎來된 南海物産의 하나로 理解된다. 琉球人들이 渡航하던 말레이 半島와 그 附近의 地域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世界的인 銅產地로 알려져 있거니와 琉球人들은 蘇木·胡椒등과 더불어 鐵을 當地로부터 輸入해다가 一部는 明에 대한 朝貢品으로 使用하고 剩餘部分은 日本人에게 販賣하였던 것이다.

琉球國王은 琉球로 輸入된 鐵이나 그밖의 南海物産의 剩餘部分을 直接 우리나라에 朝貢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日本의 博多附近까지 北上하여 日本人들에게 販賣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一般의으로는 日本商人들이 琉球까지 渡航하여 購求하였다.

## 2. 鐵의 用途와 需要

鐵은 우리말의 「납」이지만 漢字로 記錄할 때에는 普通 鐵鐵이라 하였고 李朝實錄과 같은 우리나라의 史料에는 흔히 鐵鐵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論者들 中에는 誤讀하는 傾向이 있었다. 즉 銅鐵이 銅을 意味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鐵鐵」은 鐵과 鐵이 아니라 납鐵 즉 鐵이란 金屬을 意味한다. 우리나라에서는 金銀以外의 金屬의 呼稱에 鐵(쇠)字를 붙여서 읽는 習慣이 있었고 一般의으로 鐵은 참쇠 즉 正鐵 또는 眞鐵이라 稱하였다. 그리고 銑鐵은 特히 水鐵이라 稱하였는데 水鐵은 「무쇠」의 當字이다. 무쇠의 「무」는 그 音が 물 즉 水와 通하기 때문에 水鐵이라 한 것이다.

납(鐵)은 鉛·亞鉛·錫등의 軟金屬을 意味하지만 朝·日貿易에서 去來된 鐵은 錫이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鐵 즉 錫으로 보고 論述하려한다.

鐵은 主로 銅과의 合金 및 鍍金材料로 使用되었다. 高麗圖經에 「器具用銅」이라한 것을 보면 우리民族은 古來로부터 銅器를 愛用한 것 같다. 李朝初期에는 排佛政策에 의하여 廢亡寺가 續出하였고 新羅·高麗時代에 蓄積된 佛像이 많았으므로 銅의 不足이 그리 큰 問題로 되지는 않았으나 그 後에 日本產銅에 대한 需要는 急速度로 增加하였다. 特히 世宗朝에 이르러 金屬貨幣의 鑄造와 武器製造用으로 銅의 需要가 激増하고 銅의 輸入이 増加됨에 따라서 鐵의 輸入도 増加하게 되었다.

鐵과 銅의 合金인 靑銅은 鑄錢과 鑄鐘 以外에 鐵炮·大炮製造에도 不可缺한 材料였다. 李朝時代에 있어서는 宮中을 비롯한 上流層 뿐만 아니라 庶民社會에 있어서도 家庭用 器皿의 材料로 靑銅을 愛用하였다. 特히 王子女의 出閣時에는 많은 量의 靑銅을 必要로하였다. 日本으로부터 鐵輸入이 中斷되고 在庫量이 없었던 中宗27年(天文元年 1532年) 2月 三公(領議政·左議政·右議政)은 王子女出閣時에 必要한 鑪器를 準備하기 위하여 民間으로부터 鐵을 買上할 것을 論議하였다.<sup>1)</sup>

그리고 鐵은 鐵甲·鐵冑의 鐵染用으로도 使用되었고<sup>2)</sup> 그 價格은 高價였다. 世祖3年(長祿元年 1457年)에는 鐵4斤의 價格이 綿紬(絹織物) 1匹이었다.<sup>3)</sup> 當時에 있어서의 銅價格은 11斤이 綿紬1匹이었으므로 鐵價格은 銅의 約 2.8倍로서 鐵의 相對的 評價基準은 높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鐵의 需要는 銅輸入量의 增加에 比例하여 增加하였고 鐵輸入에 의한 李朝政府의 負擔은 적지 아니하였다. 世宗 20年頃 以後에는 鐵이 「輸轉艱重之物」로 取扱될 程度로 많이 輸入되었고 鐵에 대한 給價가 흔히 問題로 되었다.

17世紀初頭에 成立한 己酉約條 以後에도 鐵은 主要輸入品으로 決定되었고 對馬島歲遣船의

1) 『中宗實錄』卷 72, 27年 2月癸巳條.

2) 『世宗實錄』卷 50, 12年 12月丁丑條.

『同書』卷 68, 17年 6月丁巳條.

3) 『世祖實錄』卷 8, 3年 6月壬寅條.

所獻別幅에도 公貿易品으로서 銅 27,900斤, 鐵 15,613斤이 列擧되었다.<sup>1)</sup>

### 3. 鐵貿易의 展開

鐵輸入이 激增한 것은 世宗 20年代 以後의 일이다. 世宗 6年(應永31年<sup>1424年</sup>)正月 戶曹의 啓에 의하면 이미 市裏人에게 日本人의 私物을 貿易할 것을 許容하고 있으며, 銅·鐵·丹木·胡椒·太刀等은 市裏人의 資金이 그리 豐足하지 못하기 때문에 工曹·兵器監·義盈庫等의 各司에서도 買上케 하고 있으나<sup>2)</sup> 世宗 10年代의 初頭에 있어서도 鐵의 輸入量은 많지 않았으며 따라서 鐵의 價格은 上昇하였다. 世宗 12年 12月 兵曹參判李中至는 褪色된 鐵胄에 鍍鐵할 것을 進言하였으나 國王은

鐵鐵非本國所產 不可費用 且戎裝唯務堅完 何必修麗 先用黑漆 更著明油可矣<sup>3)</sup>

와 같이 鐵은 우리나라에서 產出되지 않으므로 黑漆과 明油로 代用하도록 下命하였다. 世宗 17年 6月에는 軍器監에 대하여 鑄鐵鐵甲 10部를 製造할 것을 下命하였으며<sup>4)</sup> 그 以後 軍器寺에서는 「武備所用」으로 每年 一定한 量의 鑄鐵을 必要로 하였던 것이지만 重要軍備인 鐵胄의 鍍鐵까지 黑漆과 明油로 代用케 했던 것이다.

年	月	日	進	上	者	數	量
世宗 5年	7月	己丑	平	滿	景		100斤
"	5年	9月	大	藏	氏種		27斤
"	6年	11月	平	滿	景		50斤
"	7年	正月	源	義	俊		100斤
"	"	"	宗	金			?
"	11月	甲午	平	滿	景		200斤

※ 1. 『世宗實錄』에 의함.

2. 鐵의 進上者名이 明白한 것만 列擧하였다.

3. ? 또는 進上數量이 明白히 記錄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위의 表는 世宗前期에 있어서의 鐵進上量을 表示한 것이다. 鐵進上은 平滿景이가 무게를 차지하고 있고 數量이 明白한 것은 어느 것이나 百斤 以下이다.

그러나 世宗 20年(永享10年<sup>1438年</sup>)에는 日本人이 가지고 온 鐵의 量이 많아 銅·蘇木과 더불어 「輪轉艱重之物」의 하나로 되고 있었다. 世宗 20年 2月 日本人上京路邊의 各官居民이 銅鐵轉輸에 負擔이 過重하고 人馬가 疲勞하게 되므로 典農寺의 綿布 및 正布로 綿紬를 買上하고 그것을 三浦로 分送하여 貿易케 하였으며 各官에 保管하여 貢船이 上來할 때에 并載上納하게 하고 京外商賈의 希望者는 浦所(指定開港場)에 가서 購買할 것을 許可하였다.<sup>5)</sup> 이와 같은 措置에도 不拘하고 日本人들이 가지고 오는 銅鐵이 많아져서 「絡繹不絕」한 狀態였으므로 同年 8月에는 議政府의 啓에 의하여 洛東江과 漢江의 水運을 利用하여 輸京토록 하며 水結時에는 銅鐵을 갖고 오지 않도록 傳達하였다.<sup>6)</sup>

世宗 27年(文安2年<sup>1445年</sup>)頃에도 鐵鐵은 如前히 銅·蘇木과 더불어 「輪轉艱重之物」의 範疇에 屬

1) 『增正交隣志』 卷 1. 年例送使條.

2) 『世宗實錄』 卷 33, 6年 正月己亥條.

3) 『同書』 卷 50, 12年 12月 丁丑條.

4) 『同書』 卷 68, 17年 6月 丁巳條.

5) 『同書』 卷 80, 20年 2月 乙卯條.

6) 『同書』 卷 82. 20年 8月 丁巳條.

하여 輸京問題가 中央에서 論議되었고 同 29年 11월에 定한 「交易事目」에도 鐵이 規制對象으로 되어 留浦시켰던 것이다.<sup>1)</sup> 이 時期에는 日本人이 船載하는 貨物이 約 3~4千餘駄였으므로<sup>2)</sup> 鐵輸入量이 얼마나 激増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世宗31年(寶德元年<sup>1449年</sup>)에 來朝한 薩摩州藤原熙久의 使人이 進上한 禮物에는 鐵100斤이 包含되어 있었다.<sup>3)</sup> 이것은 同禮物中에 包含되어 있는 蘇木 1千斤에 比하면 많은 量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 다음 해에도 鐵은 銅·蘇木과 더불어 留浦措置의 對象品으로 되어 있으며<sup>4)</sup> 世祖元年(康正元年<sup>1454年</sup>)9月 戶曹·禮曹의 同議啓에 의하면 道安이 가지고 온 鐵·銅·蘇木의 價格은 正布 約 9萬餘匹이었다<sup>5)</sup> 世祖前期에는 琉球國王使의 名義로 進上한 鐵이 3,010斤이었고<sup>6)</sup> 世祖 3年 3月 日本國王使船主道幸이 禮曹에 낸 陳情書에 의하면 前年 道安과 九州探題使送人等이 船載하여 齋浦에 滯貨되고 있는 鐵鐵은 5,900斤에 達하고 있다.<sup>7)</sup>

成宗朝에 있어서도 多量の 鐵이 輸入된 것 같다. 世祖朝 以後 銅·鐵·皮物等を 公貿易하고 있었으므로 官家에는 그것들이 山積하고 있었다. 成宗 25年(明應3年<sup>1494年</sup>)7月 尹孝孫의 議에 의하면 諸魯倭人이 進上하는 銅鐵이 많아서 回賜가 困難하게 되고 蘇木·銅·鐵의 進上을 禁止할 것을 提議하고 있다.<sup>8)</sup> 그리고 中宗 23年(享祿元年<sup>1528年</sup>)2月에는 日本國王앞으로 보내는 書契에 公貿易價의 改定에 관하여 記錄하고 今後は 引下된 新價格에 의하여 代價를 支拂할 것을 通知하였다.<sup>9)</sup> 그 以後는 鐵輸入이 中斷되었다. 同 27年 2月 三公의 啓에는 “近來鐵鐵倭人不持來 故國無所儲 該司不得已質於民也”<sup>10)</sup>라 하여 日本人이 鐵을 가지고 오지 않으므로不得已 民間으로부터 買上할 것을 進言하고 있다.

## 第4章 그 밖의 南海物産

### 1. 水牛角

水牛角은 黒角 또는 弓角이라고도 稱하며 品帶 簪(弓)等の 裝身具 및 武器製造用으로 珍重되었다.

高官의 品帶의 主要한 裝飾部分에 水牛角을 使用하고 있었으므로 高官들에게는 必要하였으나 裝飾用으로서의 需要는 그리 많지 못하였다. 그것보다도 水牛角은 造弓材料로서 需要가 많았다.

李朝政府는 國初以來 軍國優先政策을 施行하고 兵器의 確保에 얼마간 努力하였다. 簪은 “弓爲長兵 其用最重”과 같이 가장 重要한 兵器의 하나이지만 簪의 備蓄은 水牛角의 輸入量과 比例하였다. 宗端3年(康正元年<sup>1455年</sup>)에는 水牛角을 容易하게 入手할 수 없다는 理由로 五品以下의 朝

1) 『同書』卷 108, 27年 4月 甲寅條.

『同書』卷 118, 29年 11月 乙卯條.

2) 議政府의 啓에 의하면 商倭가 所持하고 있는 雜物이 많아 折半 혹은 3分の 1을 줄여 留浦시킨 지라도 1年間에 서울로 轉輸되는 量은 2千餘駄 以上이었다(『同書』卷 118, 29年 11月 乙卯條).

3) 『同書』卷 123, 31年 2月 丙子條.

4) 『同書』卷 127, 32年 閏正月 庚申條.

5) 『世祖實錄』卷 2, 元年 9月 戊寅條.

6) 『同書』卷 2, 元年 8月 戊辰條. 『同書』卷 12, 4年 3月 丙申·丁酉條.

7) 『同書』卷 8, 3年 6月 壬寅條.

8) 『成宗實錄』卷 291, 25年 7月 己丑條.

9) 『中宗實錄』卷 65, 24年 2月 戊子·癸巳條.

10) 『同書』卷 72, 27年 2月 癸巳條.

官의 水牛角帶使用을 禁止하고 品帶製造用 水牛角의 一部를 造弓用으로 使用케 하였다.<sup>1)</sup>

우리나라의 활은 彈力性이 크고 길이가 짧은 것이 特徵이며 水牛角은 그와같은 特徵을 살리는데 가장 適合한 것이다. 兵曹判書 崔閔德의 말에 의하면 都試 때에 활이 부러지지 않았던 것은 모두 水牛角製뿐이었다고 한다.<sup>2)</sup> 그리고 成宗朝에 있어서도 “水牛角 我國最緊之物”이라고 하고 또 “水牛角 兵備最切之物”이라 하여<sup>3)</sup> 水牛角의 軍備上에 있어서의 重要性에 대하여 論議되었다.

水牛角은 활製造用으로 緊要하였기 때문에 高麗王朝에 있어서도 宋商人을 通하여 輸入하고 있었지만<sup>4)</sup> 李朝時代에는 主로 中國과 日本으로 부터 輸入하고 있었다.

年	月	日	進	上	者	進	上	物
太宗	6年	12月	丙午	日本國	丹州肥州守	水牛角		?
世宗	5年	2月	丙辰	小早河(川)	常嘉	水牛角		8本
	11月	10日	甲戌	源久豊・貴久		水牛角		3個
世祖	7年	10月	丁亥	日本國	大內殿	水牛		2頭
中宗	20年	8月	丙午	日本國	使僧景林東堂	水牛角		1,000本

※ 1. 『李朝實錄』에 의한.

2. ?표는 數量이 明確히 記錄되어 있지 않은 것임.

그런데 위의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中宗期 以前에 있어서 日本으로 부터 輸入된 水牛角은 그리 많지 않았다. 中宗 20年 8月 日本國使僧 景林東堂이 가지고 온 水牛角 1千本이 가장 많은 예이다. 當時 景林東堂이 가지고 온 胡椒・龍腦・朱紅・沈香 등은 그 3分の 2만이 公貿易되었지만 水牛角은 全部 公貿易으로 購買되었고 前年인 中宗 19年에 行하여진 價格改定時에는 水牛角은 從前의 價格보다 引下되지 아니하였다.<sup>5)</sup> 李朝後期에는 日本으로 부터 輸入되는 水牛角이 增加하여 對馬島歲遣船의 年間進上限度는 400桶으로 規定되었지만 中宗朝 以前에는 主로 中國 乃至 遼東地方으로 부터 輸入하고 있었다.

中國의 南部地方에는 水牛가 產出되었고 剩餘部分이 있었음에 틀림없지만 中國의 國防上的 配慮 때문에 弓角은 輸出禁制品으로 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赴京使節團이 往來하는 機會에 通事(通譯)와 商人이 遼東의 牙子를 通하여 水牛角을 入手하는 것이 普通이었다. 그러나 遼東貿易만으로는 必要한 量을 獲得할 수 없었으므로 明帝에게 水牛 및 水牛角의 公貿易을 奏請하였다. 水牛를 奏請한 것은 勿論 그것을 蓄植시켜서 水牛角을 自給하여 보자는데 있다 例를 들면 文宗即位年(實德<sup>2</sup>年<sub>1450</sub>) 8月 明使를 通하여 奏請한 水牛는 雌雄 20頭였다.<sup>6)</sup>

그리고 世祖 7年(寬正<sup>2</sup>年<sub>1461</sub>)에는 日本으로부터 大內氏가 雌雄2頭의 水牛를 進獻하였고<sup>7)</sup> 成宗 10年(應仁<sup>11</sup>年<sub>1479</sub>) 2月現在까지 飼育되고 있던<sup>8)</sup> 水牛數는 70頭로 增加하였으며 燕山君 3年 6月 諸

1) 『端宗實錄』卷 14, 3年 5月 癸酉條.

2) 『世宗實錄』卷 42, 10年 11月 丁卯條.

3) 『成宗實錄』卷 75, 8年 正月 甲子條.

4) 『高麗史』卷 129, 叛逆 3 崔忠獻條. 『高麗史節要』卷 16, 高宗 18年 7月條.

5) 『中宗實錄』卷 55, 20年 8月 丙午條. 『同書』卷 52, 19年 11月 辛巳條.

6) 『文宗實錄』卷 3, 即位年 8月 壬午條.

7) 『世祖實錄』卷 26, 7年 10月 丁亥條.

8) 水牛는 官府에 命하여 飼育케 하였으며 一部는 高官에게 分賜하여 車馬・耕田(農庄)에도 試用되었으나 各邑分養의 水牛는 거의 島嶼에 放置되었고 中宗 4년에는 民間에 題給하였다.

道監司앞으로 보면 下書에는 “我國多畜水牛”로 되어 있으나<sup>1)</sup> 水牛는 우리나라 風土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不充分한 管理 때문에 그 以後는 점차로 絶種하여 自給하려는 當初의 目的은 達成하지 못하였다.<sup>2)</sup>

## 2. 朱 紅

朱紅은 人工赤色硫化水銀으로서 銀朱(硃)·水花硃라고도 稱하며 天然의 赤色硫化水銀인 辰砂(辰砂·丹砂·硃·朱石)와 마찬가지로 藥用 以外에 印朱나 朱墨의 材料로 使用되며 家屋이나 槍·투구 등의 工藝品의 塗料로도 使用되었다. 高麗時代에는 國產朱紅이 使用되었다는 것을 推定하는 說도 있으나<sup>3)</sup> 李朝前期에 있어서는 國產이 稀貴하여 主로 外國으로 부터 輸入하여 國內需要를 充當하였다.

中國의 宜州地方에서는 優秀한 品質의 辰砂가 產出되었고<sup>4)</sup> 中國으로 부터 輸入된 朱紅의 量도 적지 아니하였으나 世宗朝以後는 日本으로 부터 輸入된 朱紅의 量이 相對的으로 增加한 것 같다. 中宗 24年(享祿2年)2月에 來朝한 一鰲東堂의 말에 “此商物 本非我國所 朱紅外其他物 皆質於他國”<sup>5)</sup>라 하였고 日本의 伊勢國丹生嶺山에서는 古來로 부터 水銀이 產出되었으므로 日本產朱紅도 많이 輸入된 것 같지만 室町末期에는 南海로 부터도 船載되었다.

年	月	日	進	上	者	進	上	量
世宗 3年 (1421年)	10月	丁未	對馬島萬戶左衛門太郎					10斤
世宗 5年 (1423年)	10月	壬申	筑州管事平滿景			丹砂		3斤
世宗 6年 (1424年)	6月	己未	九州總管源義俊			丹砂		4斤
世宗 7年 (1424年)	12月	癸巳	石見州長濱因幡守					4面
世宗 9年 (1427年)	正月	壬寅	對馬島萬戶左衛門太郎					10斤

※『世宗實錄』에 의한.

世宗初期에 日本으로 부터 輸入된 朱紅의 量은 위의 表에서 보는 바와 같고 또 世宗元年(應永26年)7月 李朝政府가 中外箋文以外的 朱紅打印을 禁止한 것을 보면<sup>6)</sup> 國初에는 朱紅이 아주 稀貴한 것 같다. 同 11年 9月에는 宮闕以外的 公私建物の 朱漆을 禁止하였다.<sup>7)</sup>

그러나 成宗朝의 中期에는 日本으로부터 輸入되는 朱紅의 量이 激增하였다. 成宗 19年(長享2年)閏正月 對馬島主 宗貞國의 特送 職宣이 가지고 온 朱紅價格은 綿布494條匹이었고 翌年正月에 가지고 온 朱紅은 1360疋였다. 그리고 同 22年 2月 特送船에 積載한 金·朱紅·銅의 代價는 綿布 10,906匹26尺이었다.<sup>8)</sup> 成宗 24年 10月 大內氏使가 來朝한 때에도 多量의 朱紅을 가지고 왔다. 그리하여 成宗 16年 2月의 群臣會議에서는 朱紅이 “我國切用之物”로 指摘되었으나<sup>9)</sup> 同 25年 3月 戶曹·禮曹兩判書의 啓에는

1) 『成宗實錄』卷 101, 10年 2月 辛亥條, 『燕山君日記』卷 24, 3年 6月 甲午條.

2) 『中宗實錄』卷 8, 4年 7月 己酉條, 『同書』卷 10, 4年 11月 甲子條, 『同書』卷 12, 5年 9月 庚辰條.

3) 金斗鍾博士『韓國醫學發展에 대한 歐美 및 西南方醫學의 影響』20面.

4) 辰砂가 宜砂라고도 稱하는 것은 中國의 宜州地方과 關係가 있다.

5) 『中宗實錄』卷 65, 24年 2月 癸巳條.

6) 『世宗實錄』卷 4, 元年 7月 癸亥條.

7) 『同書』卷 45, 11年 9月 辛亥條.

8) 『成宗實錄』卷 212, 19年閏正月壬辰條, 『同書』卷 224, 20年 正月 丙子條, 『同書』卷 250, 22年 2月 庚戌條.

9) 『成宗實錄』卷 283, 24年 10月 壬午條, 『同書』卷 175, 16年 2月 戊寅條.

倭人之物 不切於國用 稱爲進上 而獻馬 倭人之來無窮 而回賜之物有限 國家終必難支矣  
如胡椒丁香朱紅等物 皆於國用不切 故前所獻之物 積於無用 令私進之物 一切禁止<sup>1)</sup>

와 같이 朱紅이 緊要치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胡椒·丁香과 더불어 朱紅의 進獻量이 많았으므로 私進을 一切 禁止하자고 提議하고 있다.

16世紀에 있어서도 朱紅이 日本으로 부터 輸入되었으며 中宗 20年(應永25年<sup>1418年</sup>)4月에는 日本國王使 景林이 1,880斤의 朱紅을 가지고 왔다.<sup>2)</sup>

### 3. 黑檀(烏梅木)

黑檀은 烏木 또는 烏梅木이라고도 稱하며 南海特産物이다. 그 材料는 黑色으로 단단하며 아름다운 光澤이 나므로 高級家具나 號牌材로서 珍重되었다.<sup>3)</sup>

黑檀의 輸入量은 많지 않았고 高價였다. 世宗即位年(應永25年<sup>1418年</sup>)10月 島津元久의 使人이 黑木 100斤을 進獻하였는데<sup>4)</sup> 이 때의 “黑木”이란 黑檀으로 본다.<sup>5)</sup> 世宗 9年(應永34年<sup>1427年</sup>)1月 對馬島의 左衛門太郎이 進上한 黑檀 500斤과 同 31년에 薩摩의 藤原黑久가 進獻한 黑檀 1,000斤이 많이 輸入된 例이고 全體로서 黑檀의 輸入量은 많지 않았다. 成宗 19年(長享2年<sup>1488年</sup>)6月 戶曹判書 鄭蘭宗의 啓에는 日本人의 進物中에 蘇木과 烏梅木(黑檀)만이 “公私所用”이라고 指摘되어 있지만<sup>6)</sup> 黑檀의 重要性이 特히 強調된 것은 黑檀 輸入量이 적었기 때문이다.

價格面에서 보면 中宗 20年(大永5年<sup>1525年</sup>)9月의 黑檀價布는 6斤에 대하여 1匹이었으나 그以後는 4斤에 대하여 1匹로 騰貴하였다.<sup>7)</sup>

### 4. 象牙

象牙는 象體部分中에서 가장 有用한 것이다. 象牙는 藥材로도 使用되었고 또 品帶나 笏·標信<sup>8)</sup>·通信符·號牌<sup>9)</sup>·其他 各種工藝品·裝飾品の 貴重한 材料였다. 中國에서는 예전부터 象牙를 愛用하고 있었고 特히 周代에는 象牙가 寶石처럼 珍重히 여기고 있었다.<sup>10)</sup>

우리나라에 象牙가 最初로 輸入된 것은 中國으로부터이다. 太宗 6年(應永13<sup>1406年</sup>)12月 朝廷內史韓帖木兒楊寧等이 象牙 2隻을 가지고 왔으므로 翌年 議政府로 하여금 象牙牌를 만들게 하였다.<sup>11)</sup> 李朝前期에 있어서는 琉球國王使에 의하여 象牙가 輸入된 例가 있기는 하나 日本人

1) 『同書』卷 288, 25年 3月 己酉條.

2) 『中宗實錄』卷 55, 20年 8月 丙午條.

3) 『太宗實錄』卷 18, 9年 11月 丙申條. 『同書』卷 19, 10年 4月 己未條. 『燕山君日記』卷 52, 10年 4月 癸卯條.

4) 『世宗實錄』卷 1, 即位年 10月 乙巳條.

5) 田中健夫氏는 黑木을 染料로 規定하고 있으나 (『倭寇と 勘合貿易』163面) 黑木이란 黑色의 染料를 意味하지 않는다. 黑檀이 그 色에 의하여 烏木이라 稱하는 것과 같이 材木의 色彩에 의하여 黑木이라 記錄된 것이다. 그리고 『廣辭林』에도 黑木은 黑檀의 同名이라고 記錄되어 있다.

6) 『成宗實錄』卷 217, 19年 6月 丁未條.

7) 『中宗實錄』卷 55, 20年 9月 辛巳條.

8) 標信이란 非常事態의 緊急報告나 宮中出入時에 證明으로 使用되던 標札이다. 睿宗元년에는 從來에 使用되고 있던 烏梅(黑檀)標信의 紛失事件이 發生하였고 또 偽造할 可能性도 있기 때문에 「宣傳」이란 文字가 刻印된 象牙製의 標信을 使用하기로 하였다. (『睿宗實錄』卷 5, 元年 5月 辛卯條.)

9) 號牌란 16歲 以上の 男子가 携帶하고 있던 標札로서 氏名, 生年干支·登科의 種類 등이 記錄되어 있으며 身分에 의하여 牙牌(象牙製)·角牌(水牛角製)·黃楊木牌·方木牌 등의 區別이 되어 있으며 그 中에서 最高位를 表示하는 것은 牙牌였다.

10) 藤田豊八 博士『東西交渉史の研究』南海篇 512~3面參照.

11) 『太宗實錄』卷 12, 6年 12月 丁未條. 『同書』卷 13, 7年 2月 乙未條.

에 의하여 輸入된 量이 一層 많았다.

李朝政府가 象牙를 必要로 하고 있을 때 太宗 11年(應永18年<sup>1411</sup>)2月에는 日本國王源(足利)義持가 使臣을 派遣하고 코끼리를 보내왔다. 이 코끼리는 太宗 8年(應永15年<sup>1408</sup>)6月 南海船이 鸚鵡·孔雀等과 더불어 日本으로 積載하여 온 것인데 日本은 勿論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最初의 渡來였다. 朝廷에서는 司僕寺에 命하여 飼育케 하였으나 1日에 米2斗 豆1斗의 飼料를 必要로 하였고 官人이 밟혀죽은 事例까지 發生하여 結局 全羅島의 海島에 放牧케 하였다.<sup>1)</sup>

年	月	日	進上者	數	量
世宗 3年(應永28年 <sup>1421</sup> )	11月	乙丑	前九州總管源道鎮	象牙	2 本
世宗 5年(應永30年 <sup>1423</sup> )	正月	甲午	〃	象牙藥器	2 個
世宗 5年(應永30年 <sup>1423</sup> )	7月	丙辰	〃	象牙	30 斤
世宗 5年(應永30年 <sup>1423</sup> )	6月	庚午	筑州管事平滿景	象牙香合	5 個
世宗 5年(應永30年 <sup>1423</sup> )	7月	己丑	源 義 俊	象牙尺	1 個
世宗 5年(應永30年 <sup>1423</sup> )	11月	庚子	前九州總管源道鎮	象牙	1 本
世宗 6年(應永31年 <sup>1424</sup> )	8月	癸亥	作州刺史平常嘉	象牙	1 本
世宗 7年(應永32年 <sup>1425</sup> )	11月	丙申	源 道 鎮	象牙	? 本

※『世宗實錄』에 의한.

世宗初期에 日本人이 進上한 象牙 및 象牙製品의 數量은 위 表와 같다. 世宗 5年 7월에 바친 源(澁川)道鎮의 30斤이 가장 많고 其他는 大體로 1本 乃至 2本 정도이다. 象牙를 藥器나 香合·尺等의 製品으로 加工하여 進上하고 있는것은 日人들의 技術이 優越해서가 아니라 象牙가 그만큼 稀貴하기 때문이다.

象牙輸入量이 增加함에 따라서 各種 工藝·裝飾品の 製造에도 많이 使用된다는은 두말할 必要도 없지만 象牙製品의 使用이 普及한 成宗代에는 明이 要求한 歲貢中에 象牙가 包含되기에 이르렀다. 李朝政府는 象牙가 本國所産이 아니고 尙殘 在庫品이 있다고 하더라도 將次 輸入量이 적어졌을 때에는 應하기 困難하므로 免貢을 要請하게 되었다.<sup>2)</sup>

## 5. 犀 角

犀角은 烏犀라고도 稱하며 南海産物의 하나이다. 漢方에서는 犀角粉末을 「犀角镑」이라 하여 解熱·解毒·止血劑등으로 使用되었고 또 藥用 以外에 品帶·靴帶등의 裝飾에도 使用되었다.<sup>3)</sup>

李朝初期에는 明使를 通하여 犀角이 輸入된 例가 있기는 하나<sup>4)</sup> 그 數量은 많지 않았으며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需要의 大部分은 主로 日本人의 供給에 의하여 充當되었다.

1) 『太宗實錄』卷 21, 11年 2月 癸丑條. 『同書』卷 24, 12年 12月 辛酉條. 『同書』卷 26, 13年 11月 辛巳條. 『同書』卷 11, 3年 3月 丙子條.

2) 『成宗實錄』卷 136, 12年 12月 丁未條.

3) 『中宗實錄』卷 26, 6年 4月 庚申·癸亥條. 『同書』卷 76, 28年 11月 壬寅條.

犀角이 品帶·靴帶의 裝飾에 使用된 것은 三國時代 以後의 일이며 『三國史記』卷32, 雜誌 第二 色服條에 “帶只用烏犀·鎗·鐵·銅”이라 記錄되어 있는 것을 보면 當時에 있어서는 烏犀(犀角)이 高官의 重要한 裝飾材料로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太宗實錄』卷 12, 6年 12月 丁未條.



다음 는 世宗初期의 9年間에 日本人이 進上한 犀角의 數量을 表示한 것이다.

年	月	日	進 上 者	數	量
世宗 2年 (1420年)	11月	戊寅	都都熊瓦宗貞盛	1 對	
世宗 3年 (1421年)	4月	丁未	對馬島萬戶左衛門太郎	2 斤	
世宗 3年 (1421年)	8月	癸巳	對馬島萬戶左衛門太郎	1 對	
世宗 3年 (1421年)	8月	癸巳	一岐太守(源朝臣重)	1 對	
世宗 3年 (1421年)	11月	乙丑	前九州總管源道鎮	3 本	
世宗 3年 (1421年)	11月	乙丑	平宗壽(濃州太守)	2 本	水犀角
世宗 3年 (1421年)	正月	癸未	九州總管源義俊	3 個	
〃			〃	2 本	
世宗 5年 (1423年)	正月	甲午	薩隅口太守源朝臣久豊	2 本	
世宗 5年 (1423年)	正月	庚戌	前九州總管源道鎮	2 本	
〃			肥州太守源昌清(吉 見)	1 本	
世宗 5年 (1423年)	5月	甲辰	作州前刺史平常嘉	1 本	
〃			九州前總管源道鎮	3 本	
世宗 5年 (1423年)	6月	庚午	筑州管事平滿景	2 丁	
世宗 5年 (1423年)	6月	乙亥	對州代官野馬多老重久	3 個	
世宗 5年 (1423年)	7月	己丑	九州總管源義俊	1 本	
世宗 5年 (1423年)	9月	丙申	前九州總管源道鎮	2 本	
世宗 5年 (1423年)	10月	壬戌	九州多多良德雄(盛 見)	5 本	
〃			筑州管事平滿景	2 本	
世宗 5年 (1423年)	10月	乙丑	源義俊	3 本	
〃			源昌清	3 斤	6 兩
世宗 5年 (1423年)	10月	壬申	源義俊	4 本	
〃			平滿景	2 本	
〃			駿州太守源省	5 本	
世宗 5年 (1423年)	11月	甲午		2 本	
世宗 5年 (1423年)	11月	庚子	源道鎮	3 本	
〃			平滿景	1 本	
世宗 5年 (1423年)	12月	壬申	日本國王使圭壽私進	2 頭	
〃			日本國王使梵齡私進	1 頭	
世宗 6年 (1424年)	6月	己未	源義俊	2 本	
世宗 6年 (1424年)	8月	癸亥	九州作州刺史平常嘉	3 本	
〃			筑州刺史藤原滿貞	2 頭	
世宗 6年 (1424年)	10月	丁未	一岐守源朝臣重	1 個	
世宗 6年 (1424年)	11月	甲午	平滿景	4 頭	
世宗 7年 (1425年)	正月	丁丑	九州都元帥源義俊	?	
世宗 7年 (1425年)	7月	壬午	筑前太宰宗貞燈	?	
世宗 7年 (1425年)	11月	丙午	源道鎮	?	
世宗 7年 (1425年)	11月	己酉	源昌清	?	
世宗 8年 (1426年)	正月	己亥	源昌清	?	
世宗 8年 (1426年)	11月	庚寅	日本筑州石成管事宗金	1 頭	
世宗 9年 (1427年)	正月	戊申	薩摩州伊集院寓鎮藤原頼久	1 本	

世宗 9年 (1427年) 正月 壬寅	左衛門太郎	8 個
世宗10年 (1428年) 2月 甲寅	宗 金	?

※ 1. 『世宗實錄』에 의함

2. ?는 數量不明인것을 表示함.

犀角의 數量을 表示하는 單位가 一定하지 않고 또 進獻數量이 記入되어 있지 않은 例도 있어서 正確한 數量은 알 수 없으나 이 期間에 約 1000餘本の 犀角이 約 40회에 걸쳐서 輸入되었다고 推算된다. 1人當 進獻量이 가장 많은 것은 世宗 5年 1月 源昌清이 바친 8本과 世宗 9年 1月 左衛門太郎이 바친 8本이며 그 다음이 同 5年 10月 多多良德雄이 바친 5本과 源省이 바친 5本이다. 其他는 大體로 1本 乃至 2本이 많고 全體平均은 約 2.6本으로 推算된다.

위의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犀角의 輸入은 他輸入品에 比하여 輸入度數가 많은 反面에 1回の 輸入量(進上量)이 적은 것이 特徵이다. 즉 犀角의 進獻度數는 同期間에 있어서의 胡椒의 進獻度數보다도 많지만 輸入量은 적다. 이것은 日本人이 購入한 犀角의 原價가 高騰하여서라기보다도 그만큼 우리나라의 需要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日本人도 犀角의 轉賣에 의한 利潤의 獲得에는 그리 關心을 가지지 아니하였다고 생각된다. 朝貢의 屬性을 가진 貿易에 있어서는 單一種類의 生産物보다도 多樣한 特産物을 바치는 것이 普通이므로 日本人들은 다른 進上物에 끼어서 犀角을 進獻한 것으로 본다.

世宗 10年 以後는 犀角의 輸入이 減少되었지만 特히 16世紀에는 激減한 것 같다. 『李朝實錄』에도 犀角의 輸入에 대하여 그리 記錄되어 있지 않다. 中宗朝의 中期에는 犀角帶가 弓角(水牛角)·書冊·白黃糸等과 더불어 “不可無之物”로 되어있다.<sup>1)</sup> 그리고 中宗 26年(享祿4年 1531年)에 있었던 犀角帶의 「受賂」事件이 朝廷에서 크게 論難된 것을 보더라도 犀角의 稀少價値가 얼마나 컸던가를 알 수 있다.<sup>2)</sup>

## 6. 白 檀

白檀은 印度·티모르島主産의 常綠高木으로서<sup>3)</sup> 芳香이 있으며 佛具細工物用과 香料藥材等に 使用된다. 白檀은 白檀香이라고도 稱하며 五香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에서는 主로 焚香料로 使用되었지만 焚香料로서는 沈香을 一層 貴重한 것으로 認識했다.

成宗 19年(弘治元年 1488年) 6月 戶曹判書 鄭蘭宗의 啓에는 白檀香이 “不緊於用”한 것으로 指摘되어 있지만 成宗 19年은 日本人이 가지고 來朝하는 貨物이 많고 그것에 대한 3個月間의 答賜布帛(麻織物과 絹織物)이 10餘萬匹이 될 程度로 財政支出이 많았던 時期이므로<sup>4)</sup> “不緊於用”이란 白檀이 高價하다는 것과 有効需要가 작다는 事實을 表示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同 25年 7月 少貳氏使人이 進上한 丁香·白檀에 대하여 群臣會議에서는 “所用甚微”로 斷定하고 正布 1匹에 대하여 丁香8兩이었던 從來의 價格을 5斤으로 引下하고 白檀도 正布 1匹에 대하여 7兩에서 부터 8斤으로 引下하여 日本人의 過多한 進上을 沮止하려 하였으나 成宗은

白檀丁香 雖曰不緊 然於國用所 不可無者也<sup>5)</sup>

1) 『中宗實錄』 卷 76, 28年 11月 壬寅條.

2) 『同書』 卷 20, 26年 4月 庚申·癸亥條.

3) 山田憲太郎博士의 研究에 의하면 “中國人은 唐代 以前에는 白檀을 印度로부터 供給받았으나 宋朝以後에는 오로지 티모르를 中心으로하는 暹羅레스群島로부터 供給받았다”고 한다. (『東西香藥史』 405面).

4) 『成宗實錄』 卷 217, 19年 6月 丁未條.

5) 『同書』 卷 291, 25年 7月 己丑條.

와 같이 역시 國用으로서 必要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李朝前期에 日本으로 부터 輸入된 白檀香의 數量은 많지 않았지만 中央官府의 需要를 十分 充足시킬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世宗初期에 日本으로 부터 輸入된 白檀香은 다음表와 같다.

年 月 日	進 上 者	數 量
世宗 5年 (1423年) 正月 癸未	九州總管源義俊	30 斤
世宗 5年 (1423年) 正月 甲午	日向太隅薩摩太守源朝臣久豊	10 斤
世宗 5年 (1423年) 正月 庚戌	駿州太守源省	4 斤 3 兩
世宗 5年 (1423年) 2月 丙辰	前九州總管源道鎮	37 斤
世宗 5年 (1423年) 10月 壬戌	九州多多良德雄	50 斤
世宗 5年 (1423年) 10月 乙丑	源義俊	14 斤
"	平常嘉	檀 首 8 斤
世宗 5年 (1423年) 10月 甲戌	源朝臣久豊	50 斤
"	源貴久	25 斤
世宗 5年 (1423年) 12月 壬申	日本國王使臣圭籌・梵齡	50 斤
世宗 5年 (1423年) 12月 甲戌	圭籌의 私進	13 斤
"	梵齡의 私進	30 斤
世宗 6年 (1424年) 8月 癸亥	作州刺史平常嘉	15 斤
世宗 9年 (1427年) 正月 壬寅	一岐州知主源朝臣重	檀 香 100 斤
"	對馬左衛門太郎	2 斤

※ 1. 『世宗實錄』에 의함.

2. 檀香이란 元來 紫檀과 白檀의 通稱이지만 一般的으로 白檀을 意味할 경우가 많았다.

世宗 4년까지는 白檀의 『輸入』에 관하여 實錄에 그리 記錄되어 있지 않으나 위表에 表示된 數量을 集計하면 世宗 5년부터 同 9년까지 約 330斤의 白檀이 輸入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sup>. 進獻量이 가장 많은 것은 世宗 9年 1月 源朝臣重이 바친 檀香 100斤이지만 白檀香의 1回進獻量은 多多良德雄과 國王使臣의 50斤이 많은 便이며 1回平均進獻量은 25.6斤이다.

世宗中期 以後도 繼續하여 白檀이 輸入되었다. 數量이 明確히 記錄되어 있는것은 世宗 31年(寶德元年)<sup>1449年</sup> 2月 薩摩州藤原熙久가 바친 50斤이지만<sup>2)</sup> 燕山君과 中宗朝에 100斤 乃至 500斤의 白檀香이 內入된 것을 보면<sup>3)</sup> 이 時期에 있어서의 白檀의 輸入量은 적지 않았던 것 같다.

## 7. 丁 香

丁香은 丁香樹의 꽃봉오리로서 丁子香이라고도 稱하며<sup>4)</sup> 香料 및 藥料로 使用된다. 丁香의 主產地는 몰루카諸島・자와・수마트라・말레이半島等の 東南아시아이지만 特히 몰루카諸島는 香料島로 알려진 바와 같이 丁香・肉荳蔻의 產地로 有名하다.

1) 『檀香』을 加算하면 約 438斤이다. 그리고 白檀香 330斤의 價格은 正布로 750匹以上으로 推算된다.

2) 『世宗實錄』 卷 123, 31年 2月 丙子條.

3) 『燕山君日記』 卷 18, 2年 9月 乙巳條. 『中宗實錄』 卷 31, 12年 閏12月丙申條. 『同書』 卷 41, 16年 4月癸未條.

4) 丁香에는 雌・雄 2種이 있으며 雄을 丁香이라 하고 雌를 鷄舌香이라 한다. 乾燥한 丁香은 (芎)(釘)과 같은 形態이므로 丁子라 稱하고 雌는 닭의 혀(舌)와 같은 形態이므로 鷄舌香이라 稱한다. 그리고 香氣와 맛은 꽃봉오리를 따서 乾燥한 것이 最高이지만 開花・結實한 것도 있었다고 한다 (山田憲太郎博士『前掲書』 358面, 459面).

丁香도 其他의 南海産物과 마찬가지로 日本人이 琉球를 通하여 購得한 것을 우리나라로 輸出한 것이지만 그 輸入量은 많지 아니하였다.

年	月	日	進上者	數	量
世宗即位年(1418年)	9月	乙丑	一岐萬戶道永		15 斤
世宗即位年(1418年)	10月	乙巳	日向州太守源氏島津元久	丁香	4 個
		"	筑前州石城官 府平滿景		2 個
世宗 5年(1423年)	9月	丙申	前九州總管源道鎮		5 斤 8 兩
世宗 6年(1424年)	8月	癸亥	作州刺史平常嘉		50 斤

※『世宗實錄』에 의함.

위의 表는 世宗即位年부터 同 6年까지의 9個年間に 日本으로 부터 輸入된 丁香의 量을 表示한 것이다. 世宗 6年 8월에 平常嘉가 바친 50斤이 가장 많고 나머지는 15斤 以下이다.

이 期間에는 丁香皮도 約 283斤이 輸入되었다. 丁香과 丁香皮는 從來에 同一한 것으로 取扱되었지만<sup>1)</sup> 丁香皮는 丁香樹皮나 말라이의 肉桂인 것 같고<sup>2)</sup> 丁香樹의 꽃봉오리와는 相異한 것이다.

世宗 10年(正長元年<sup>1429年</sup>)以後는 丁香의 輸入量이 增加하였고 成宗朝에 이르러서는 丁香이 我國切用之物<sup>3)</sup>로 看做되었지만<sup>4)</sup> 有効需要의 不足으로 말미암아 輸入을 一層 制限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5)</sup>

## 8. 沈 香

沈香은 沈香木의 略稱으로서 熱帶産高木이다. 沈香木의 樹脂分이 凝集한 部分은 芳香性이 豊富하고 물보다도 比重이 무거우므로 沈水香이라고도 稱하며 文廟·宗廟·寺院 및 其他의 各種祭祀用 焚香料로서 所重히 여겼다.

沈香의 主産地는 인도지나半島이고 特히 交趾·占城에서는 優良한 沈香인 香木(伽羅)이 産出된다<sup>6)</sup>. 우리나라에는 香木도 輸入되기는 하였지만 香木은 高價이고<sup>6)</sup> 日本人이 바친 것은 主로 沈香이었다.

祭祀時의 焚香에는 土産의 蔓松을 紫檀이라 命名하여 利用하였으나<sup>7)</sup> 上流社會에서는 沈香을 愛用하고 있었고 特히 宗廟·社稷의 祭典에는 沈香을 必要로 하였으므로 沈香은 “切於國用”으로 看做되어 龍腦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購買價格을 引上함으로써 輸入量을 增大시키려 하였다.<sup>8)</sup>

沈香은 明으로부터도 輸入되었지만 中國에서는 沈香의 需要가 많았으므로 外國에의 流出을 制限하였고 따라서 明으로부터 輸入한 沈香의 量은 그리 많지 않았다. 世宗 14年(永享4年<sup>1432年</sup>) 10月 禮曹判書 申商은

朱砂龍腦 雖曰貴藥 求之中國 則猶可得也 沈香則雖中國未易得之 往者 倭人資沈香來者

1) 今村賴氏「室町時代に於て日鮮間に貿易された本草の物品」(『本草』第26號 所收).

2) 山田博士는 「丁香皮」를 말레이 產肉桂로 推定하고 있다 (『前掲書』484~485面參照).

3) 『成宗實錄』卷 175, 16年 2月 戊寅條.

4) 成宗 25年頃의 丁香時勢는 丁香 8兩에 대하여 正布 1匹이었다 (『成宗實錄』卷 291, 25年 7月 己丑條).

5) 沈香과 伽羅木에 대하여서는 山田憲太郎博士『東西香藥史』가 詳細하다.

6) 17世紀의 中葉에 長崎에서 去來된伽羅木은 沈香의 約 7倍 乃至 20倍였다 (『同書』395~6面參照).

7) 黒田省三氏「中世朝鮮貿易に於ける輸出貨資に就いて」(兒玉幸多氏編『日本社會史の研究』所收).

8) 『成宗實錄』卷 291, 25年 6月 丁丑·癸酉條.

比比有之 我國折價甚輕 故不更賈來 沈香不產倭邦 及旁求他國而來 雖倍其價也<sup>1)</sup>  
와 같이 朱砂·龍腦는 中國에 求하면 얻을 수 있으나 沈香은 容易하게 얻을 수 없다고指摘하고 沈香은 倭邦에 產出되지 아니하여 他國으로 부터 旁求하고 있으므로 그 價格을 倍로 引上하여 輸入을 再開할 것을 主張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上流社會에서 必要한 數量은 主로 日本人의 中繼에의 하여 輸入되고 있었다. 世宗初期의 沈香의 輸入을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年	月	日	進 上 者	數	量
世宗即位年(1418年)	12月	甲辰	筑州太守藏親家		2 斤
世宗 3年 (1421年)	6月	辛丑	九州總管源義俊		3 斤 3 兩
世宗 3年 (1421年)	7月	乙丑	筑州石城縣使民部小輔平滿景	香 木	3 斤
世宗 3年 (1421年)	11月	乙丑	濃州太守平宗壽		30 斤
世宗 5年 (1423年)	正月	癸未	源義俊		2 斤
世宗 5年 (1423年)	正月	甲午	日向大隅薩摩太守源朝臣久		10 斤
世宗 5年 (1423年)	5月	甲筑	州府石城管事平滿景		2 斤
世宗 5年 (1423年)	6月	庚午	〃		10 兩
〃			前九州總管源道鎮		10 斤
世宗 5年 (1423年)	9月	丙申	平滿景		5 斤
世宗 5年 (1423年)	10月	壬申	對馬左衛門太郎		3 斤
世宗 5年 (1423年)	12月	壬申	日本國王使圭壽・梵齡		30 斤
世宗 5年 (1423年)	12月	甲戌	圭壽의 私進	沈束	13 斤
〃			梵齡의 私進	沈束香	5 斤
世宗 5年 (1423年)	12月	乙亥	源道鎮	2 斤	4 兩
世宗 9年 (1427年)	正月	壬寅	左衛門太郎	木 香	2 斤
世宗10年 (1428年)	2月	甲寅	筑州府石城縣宗金	沈 香	2 斤
					?

※ 1. 『世宗實錄』에 의한.

2. 平滿景이 바친 “香木 3斤”은 伽羅木인지 白檀인지 不明하다.

3. “沈束香”은 沈香과 束香을 意味하는 것 같다.

世宗即位年부터 同 10년까지 輸入된 沈香은 約 126斤이며 1回平均은 70.4斤이다. 全體의 量은 그리 많지 않으나 明과 琉球로 부터도 輸入되고 있었으므로 官府 및 貴顯家の 需要는 거의 充當된 것으로 본다.

成宗 25年頃은 沈香價格이 低廉하게 決定되어 沈香輸入이 減少된 것 같다. 同年 6月 戶曹參判 李諤等의 啓에 의하면 “倭人之物”의 價格은 合計 5千餘匹이 었으나 成宗은 龍腦・大狼皮・沈香만은 國用으로서 緊要하므로 價格을 調整하여 買上할 것을 指示하고 있다.<sup>2)</sup>

沈香에 대한 需要는 16世紀에 있어서도 增加하고 있었다. 中宗과 明宗朝에 있어서도 沈香은 胡椒・丹木(蘇木)・龍腦와 더불어 重要な 貿易品으로 되고 있었던 것이지만<sup>3)</sup> 特히 日本으로 부터 多量의 沈香이 輸入된 것은 中宗 20年이다. 同年 4月 日本國王使(足利將軍使)가 가지고 온 沈香은 2,188斤이었다. 이것은 沈香이 가장 많이 輸入된 例이지만 數量이 많으므로 政府는 그 3分の2를 公貿易으로 하고 나머지는 私貿易으로 處理케 하였다.<sup>1)</sup>

1) 『世宗實錄』 卷 58, 14年 10月 乙巳條.

2) 『成宗實錄』 卷 291, 25年 6月 癸酉・丁丑條.

3) 『中宗實錄』 卷 64, 23年 12月 甲戌條, 『明宗實錄』 卷 1, 即位年 8月 壬寅條.

## 9. 龍 腦

龍腦란 龍腦樹에서 採取한 白色結晶으로서 水片이라고도 稱하며 五香中의 하나로 손 꼽는 名香이며 食傷・中風・咳嗽等の 藥材와 防虫劑로도 緊要하게 使用되었다.

龍腦의 主産地는 말라이・수마트라・보르네오等이다. 天然龍腦는 지나치게 高價이므로 輸入量은 그리 많지 못하였다.

太宗 6年(應永<sup>13</sup>1406年) 8月 全羅道沿岸에서 倭寇에게 略奪당한 爪哇國使船 所載品에는 龍腦가 包含되어 있었지만 南海諸國으로부터 龍腦를 直接輸入한 例는 드물었고 李朝初期에는 主로 中國으로부터 輸入하고 있었다.<sup>2)</sup> 그런데 世宗朝 以後 日本貿易이 盛行됨에 따라 必要量의 大部分은 日本으로부터 輸入되었다.

年	月	日	進	上	者	數	量
世宗 3年 (1421年)	4月	丁未	對馬左衛門太郎			4	面
世宗 5年 (1423年)	正月	甲午	筑州管事平滿景			25	錢
世宗 5年 (1423年)	10月	辛亥	對馬州太守宗貞盛			1 斤	4 兩
世宗 5年 (1423年)	11月	庚子	平滿景			3	面
世宗 9年 (1427年)	正月	壬寅	一岐州知主源朝臣重			5	兩
	"		肥前州松浦僑居源臣昌明			3	兩

※『世宗實錄』에 의함.

위의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世宗初期에 日本으로부터 輸入된 龍腦의 量은 僅少하다. 龍腦는 明政府에 求請하면 어느 程度 低廉한 價格으로 얻을 수 있었으므로<sup>3)</sup> 日本人이 가지고 오는 龍腦를 高價로 買上할 必要는 없었지만 明皇帝의 回賜에 의하여 中國으로부터 그것을 輸入하는 것은 偶然的이었으며 또 必要時에 일일이 求請하는 것은 煩雜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하여 成宗 25年(明應<sup>3</sup>1494年) 6月에는 買上價格을 引上하여서라도 國用으로서 所重한 龍腦를 日本으로부터 購買하게 된 것이다.<sup>4)</sup>

中宗 20年(大永<sup>5</sup>1525年)頃은 龍腦의 輸入이 增大하였다. 中宗 18年 6月 日本人이 가지고 온 金・銀・龍腦를 全部 公貿易으로 하면 慶尙道가 保有하고 있는 綿布로는 모두 買上할 수 없을 程度였다.<sup>5)</sup> 그리고 中宗 20年 8月 日本國王使가 가지고 온 龍腦는 28斤이었다.<sup>6)</sup> 中宗 20年에 國王使 景林이 가지고 온 胡椒・朱紅・沈香・水牛角・大狼皮・龍腦等은 모두 高價品이며 蘇木輸入이 減少된 16世紀에 있어서 異例의으로 많이 輸入되고있다. 從來에 1회에 5兩未滿의 龍腦가 去來되고 있었던 것과 比較하면 約 90倍의 龍腦가 輸入된 것이다.

16世紀의 後半期에 있어서도 壬辰倭亂時期까지는 日本人이 多額의 龍腦를 가지고 왔고 必要한 龍腦의 買上에는 難關이 없었으나 主로 價格水準의 決定이 問題로 되고 있었다.<sup>7)</sup>

1) 『中宗實錄』卷 54, 20年 4月 丁未・戊申・丁巳條. 『同書』卷 54, 20年 5月 己卯條. 『同書』卷

55, 20年 8月 丙午條. 『同書』卷 55, 20年 9月 壬戌・辛巳條. 『同書』卷 55, 20年 11月 丁卯條.

2) 『太宗實錄』卷 12, 6年 12月 丁未條. 『同書』卷 8, 4年 11月 己亥條.

3) 『成宗實錄』卷 128, 12年 4月 壬戌條. 『同書』卷 129, 12年 5月 癸未・庚寅條.

4) 『同書』卷 291, 25年 6月 癸酉・丁丑條.

5) 『中宗實錄』卷 48, 18年 6月 丁卯條.

6) 『同書』卷 55, 20年 8月 丙午條.

7) 『同書』卷 64, 23年 12月 甲戌條. 『同書』卷 102, 39年 4月 丙戌條. 『明宗實錄』卷 1, 即位年 8月 壬寅條.

## 10. 藿 香

藿香은 우리나라에 輸入된 南海產藥草의 하나이다. 藿香의 主產地로는 통진과 廣州가 알려져 있으나 中國보다도 日本人의 中繼에 의하여 많이 輸入되었다.

이것을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年	月	日	進 上 者	數 量
世宗 5年 (1423年)	正月	癸未	九州總管源義俊	50 斤
世宗 5年 (1423年)	正月	甲午	筑州管事平滿景	10 斤
世宗 5年 (1423年)	正月	庚戌	肥州太守源昌清	10 斤
世宗 5年 (1423年)	2月	丙辰	前九州總管源道鎮	50 斤
世宗 5年 (1423年)	5月	甲辰	平滿景	10 斤
	"		作州前刺史平常嘉	20 斤
	"		源道鎮	20 斤
世宗 5年 (1423年)	9月	丙申	"	30 斤
世宗 5年 (1423年)	9月	壬寅	備州刺史大藏氏種	8 斤
世宗 5年 (1423年)	10月	壬戌	平滿景	30 斤
世宗 5年 (1423年)	10月	乙丑	源義俊	30 斤
	"		源昌國	30 斤
世宗 5年 (1423年)	11月	甲午	源義俊	20 斤
	"		源朝臣	5 斤
世宗 5年 (1423年)	12月	壬申	日本國王使圭壽・梵齡	20 斤
世宗 5年 (1423年)	12月	甲戌	圭壽의 私進	5 斤
	"		梵齡의 私進	5 斤
世宗 6年 (1424年)	8月	癸亥	平常嘉	30 斤
世宗 7年 (1425年)	正月	丁丑	源義俊	
世宗 8年 (1426年)	11月	庚寅	筑州石城管事宗金	20 斤
世宗 8年 (1426年)	12月	癸酉	源道鎮	10 斤

※『世宗實錄』에 의함.

世宗 5년부터 同 8년까지의 藿香輸入量은 數量이 確實한 것만 集計하면 413斤 이고<sup>1)</sup> 1人當 平均進獻量은 約 20斤이다. 가장 많이 進上한 例는 世宗 5年 1月 源義俊의 50斤과 同 2月 源道鎮의 50斤이며 其他는 10斤 乃至 30斤이 普通이다.

世宗 9年 以後도 藿香이 輸入되었음에는 틀림없으나 資料不足으로 確實한 數量은 알수 없다.

## 11. 甘 草

甘草는 荳科의 宿根草로서 國老라고도 稱하며 그 뿌리를 말린 것은 特殊한 甘味가 있어 五藥의 하나로 所重히 여겼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甘草의 需要는 많았고 主로 中國으로 부터 輸入하고 있었으나 世宗朝 以後는 日本으로 부터도 輸入되었다. 이것을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秋山謙藏氏는 이 期間에 輸入된 藿香의 量을 1,303斤으로 보아 蘇木・胡椒와 더불어 三大南海物產으로 取扱하고 있으나 筆者가 集計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誤解이다.

年	月	日	進上者	數	量
世宗 3年 (1421年)	11月	乙丑	濃州太守平宗壽	10	斤
世宗 5年 (1423年)	正月	癸未	九州總管源義俊	20	斤
世宗 5年 (1423年)	正月	甲午	日向大隅薩摩太守源朝臣久豊	10	斤
	"		筑州管事平滿景	20	斤
世宗 5年 (1423年)	正月	庚戌	前九州總管源道鎮	50	斤
世宗 5年 (1423年)	5月	甲辰	作州前刺史平常嘉	10	斤
世宗 5年 (1423年)	6月	庚午	源道鎮	10	斤
世宗 5年 (1423年)	6月	乙亥	對馬州代官野馬多老重久	15	斤
世宗 5年 (1423年)	12月	壬申	日本國王使臣圭壽・梵齡	50	斤
世宗 5年 (1423年)	12月	甲戌	圭壽의 私進	10	斤
	"		梵齡의 私進	10	斤
世宗 6年 (1424年)	11月	甲午	平滿景	10	斤
世宗 7年 (1425年)	正月	丁丑	源義俊	?	
世宗 9年 (1427年)	正月	壬寅	對馬左衛門太郎	10	斤
世宗 10年 (1428年)	2月	甲寅	石城縣藤宗金	?	

※『世宗實錄』에 의한.

위의 表에 의하면 世宗 3년부터 同 10년까지의 8年間에 日本으로부터 輸入된 甘草는 230斤 以上이다. 源道鎮과 日本國王使가 바친 50斤이 가장 많고 其他는 大體로 10斤 乃至 20斤이며 1回平均輸入量은 約 18斤이다.

日本人이 바친 甘草의 原產地가 具體적으로 어디인지는 明白하지 않으나 中國의 南京과 福州은 甘草의 產地로 일찍부터 알려져 있고<sup>1)</sup> 明으로부터 輸入한 것을 再輸出한 것이 아닌 가 한다.

그러나 甘草의 需要에 比하여 輸入量이 적었기 때문에 世宗初期에 있어서는 甘草가 高價로 販賣되고 있었다. 甘草가 購買力이 있는 서울의 上流層에서 主로 使用되고 地方까지 普及되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다.<sup>2)</sup> 李朝政府에서는 藥用으로서 必要不可缺한 甘草를 自給給自足하러 하였음에 틀림 없다. 世宗 30年(嘉吉<sup>5</sup>年<sup>1448</sup>)2月 日本人이 甘草種을 바쳤으므로 全羅・咸吉道監司에게 命하여 그것을 栽培케 하였다.<sup>3)</sup> 成宗 16年(文明<sup>17</sup>年<sup>1485</sup>)閏 4月 全羅・永安・慶尙平安道觀察使에게 보낸 下書에

甘草不產我國 世宗朝求之中原 種子上林園 遂分種諸道 欲其蕃盛種之久已……<sup>4)</sup>

와 같이 記錄되어 있는 것을 보면 三木博士의 말과 같이 世宗 30년에 進上한 甘草도 日本人이 中國產甘草를 輸入한 것으로 생각된다.<sup>5)</sup>

世宗 30년에 全羅道・咸吉道監司에게 命한 甘草種의 培植은 全羅道の 羅州・珍島・栗島에서 一時 成功하였고 3年後인 文宗元年에는 各道에 種子를 配分하여 甘草栽培를 獎勵하였지만<sup>6)</sup> 管理가 不充分하였기 때문에 成宗初期에 있어서는 培養條數가 顯著히 減少되고 말았다. 例를 들면 成宗 4年(文明<sup>5</sup>年<sup>1473</sup>)3月 全羅道觀察使 金慶之에게 보낸 下書에 의하면 光陽에서 栽

1) 三木榮博士『朝鮮醫學史及疾病史』136面參照.

2) 『世宗實錄』卷 60, 15年 6月 壬午條參照.

3) 『同書』卷 119, 30年 2月 丁巳條.

4) 『成宗實錄』卷 178, 16年閏 4月 己酉條.

5) 三木博士『前掲書』158面參照.

6) 『文宗實錄』卷 7, 元年 5月 戊戌條, 『同書』卷 10, 元年 11月 丙戌條.



培하던 甘草는 63條 中에서 26條만이 現存하며 咸平에서는 107條에서 83條로 減少되었고 羅州에서는 3,075條에서 2,521條로 減少되었다.<sup>1)</sup> 이 時期에 있어서도 日本人은 甘草를 가지고 왔지만 그 數量은 世宗朝에 比하여 많지 못하였다. 例를 들면 成宗即位年(文明元年)<sup>1469年</sup> 12月 對馬島 宗貞國은 겨우 甘草 10斤을 바쳤음에 지나지 않다.<sup>2)</sup>

## 第5章 結 言

朝貢의 形式을 지닌 아시아型 貿易樣式에 있어서의 進上物은 必然的으로 支配層의 欲望을 滿足시키는 것이 普通이다. 그리하여 中央集權의 體制下에서 抑商政策을 強行하고 있던 李朝의 官府나 支配階級에게는 進上物의 實이 重要な 意味를 갖게 되고 進上物에 대한 需要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朝・日貿易의 展開過程에 많은 影響을 끼치게 된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리 主要貿易品으로서 取扱되고 있지않은 蘇木이라든지 또는 오로지 調味料로서 去來되고 있는 胡椒가 前近代社會에 있어서는 그 用途가 多樣했고 國際貿易의 主要한 客體로 되고 있었으며 특히 明을 中心으로하는 아시아의 貿易體制에 있어서는 蘇木・胡椒等の 南海產物이 主要한 進貢物이 되고 많은 中國文物이 그것을 媒介로하여 吸收되었다.

이와 같은 事實은 交隣・朝貢・商業의 세 性格을 갖는 朝・日貿易에 대하여서도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南海產物에 대한 지나친 需要는 李朝前期에 蔓延되고 있던 奢侈觀念과도 直接的關係가 있다. 그리고 琉球의 中繼貿易이 全盛期에 있어서는 日本人들은 容易하게 南海物產을 우리나라로 中繼할 수 있었으므로 供給上의 輿件도 좋았던 것이다. 日本人들은 우리나라가 要求하는 南海物產을 有利한 條件으로 供給함으로써 우리나라의 文物특히 正布나 綿布와 같은 工產品을 回賜形式으로 支給받았던 것이다.

外國貿易은 그 組織이나 政策과 더불어 數量的 把握이 특히 必要하다. 本論文에서는 지금 까지 不明하였던 對日南海物產貿易을 數量的 把握에 焦點을 두고 檢討하였다. 그리고 輸入된 南海物產의 相關關係를 究明함으로써 南海物產貿易을 一層 明白히 할 수 있었다. 世宗朝以後 蘇木輸入이 增加함에 따라서 胡椒의 輸入量도 增加하였지만 李朝初期에는 그 輸入量이 그리 많지 아니하였고 成宗 10年代에 있었던 “胡椒種旁求”의 影響에 의하여 그 後 胡椒의 輸入量은 激增하였다. 그리고 胡椒는 藥餌로서 所重하게 여겼고 中國으로 부터 輸入하는 所謂唐物에 대한 支拂手段으로도 使用되었으므로 斷續의이기는 하지만 16世紀에 와서도 다른 南海物產에 比하여 需要가 遞増하였다.

南海物產貿易의 相關關係는 南海物產에 限할 것이 아니라 日本國產物인 銅이나 硫黃貿易에까지 擴大하여 究明함으로써 日本人의 商業資本과 琉球의 中繼貿易等 附隨의인 問題의 解明에도 間接的으로 寄與할 줄 아나 銅・硫黃貿易은 다른 機會로 미루어 다룰까 한다.

1) 『成宗實錄』 卷 15, 3年 2月 乙酉條. 『同書』 卷 28, 4年 3月 甲辰條. 『同書』 卷 178, 16年閏 4月 己酉條.

2) 『同書』 卷 1, 即位年 12月 癸亥條.

〈Summary〉

# Trade in South Asian Products between Korea and Japan during The Early Yi Dynasty

by

Byung-Ha Kim

(Asst. Prof. Dr.)  
(Kyung-Hi Univ.)

The present paper is a study of the importation from Japan to Korea of sapanwood, pepper, and other spices and medicines during the 15th and 16th centuries. During this period, the official trade between Korea and Japan consisted of the Japanese exchanging the special products of South Asia with the Korean government for cloth, cotton goods, rice, beans, and other essential goods. Japan at this time, with the exception of 2 or 3 mineral products, had little to offer in the form of special products which were acceptable to the Korean nobility. Consequently, the Japanese bought sapanwood, pepper, aloes wood, sandalwood, clove, camphor, tin, water buffalo horn, and other goods from the Ryukyu Islands and exported them to Korea. The Ryukyu Islanders purchased the above goods on the Malayan Peninsula, Sumatra, Java, and nearby areas and relayed them to the Japanese. When studying the trade between Korea and Japan during this period,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goods exported. In this paper I attempted a quantitative analysis, focussing on the change in the demand for some of the above goods in Korea and the change in the supply of these goods from Japan. In particular, large quantities of sapanwood were traded during the 15th century, but this trade was interrupted for about 5 years during the 16th century. I have searched for a decline in the trading power of the Ryukyu Islands as the cause of this interruption. As the number of vessels dispatched from the Ryukyus to the Sumatra area decreased, it resulted in an increase in the volume of pepper and other spices which were even more expensive than sapanwood. Not only did trade increase more in the second half of the 16th century than in the first, but the price rises vigorously demanded by the Japanese were also probably for this reason. In addition, I have included my theories on the trade route between the Ryukyus and Korea.